

미국의 한 교육자인 마바 콜린스(Marva Coll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을 교정하려 하지 말라. 먼저 우리 자신을 교정해라. 훌륭한 선생님은 부진한 학생을 우수하게 만들고, 우수한 학생은 더욱 뛰어나게 만든다(Don't try to fix the students, fix ourselves first. The good teacher makes the poor student good and the good student superior).” 서문여자중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은 한 달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안은 채 시작되었지만, 교육실습을 무사히 마친 후에는 위와 같은 마바 콜린스의 인용구가 유독 마음에 와닿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 실습 첫날, 담당 학급의 아이들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은 않았다. 웅성거리는 낮은 교실 안으로 들어서며 교생으로서의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 대한 부담감이나 떨림 등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가운 인사와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교육 실습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교육실습을 하면서 줄곧 생각하게 된 점은 교육실습 과정 자체가 예비 교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을 여러 측면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에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한 달 간의 실습 기간 동안 내가 주로 경험하고 배운 것은 전반적인 교사의 업무 혹은 교사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교사의 전체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실습 기간의 첫 주에는 학교의 연구진학부, 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등의 여러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에 있었을 때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여러 사항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실습 둘째 주에는 주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관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영어를 담당하시는 이월수 선생님의 수업에 참관한 것을 토대로 내가 직접 행하는 수업에서 많이 활용해볼 수 있었다. 참관하는 동안 선생님의 어조나 몸짓, 수업에서 활용되는 활동들, 그리고 수업의 전개 방식 등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 내용을 교사의 입장이 되어 어느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 영어 수업에 직접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이라서 그런지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집중도를 유지시키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발표하는 학생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학습 자료로 선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실험해보기도 했다. 어느 반에서는 주로 듣기활동으로 이루어진 Listen & Speak 1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해야 했는데, 그 때 마침 오디오가 아예 작동하지 않아 직접 대본을 읽어줘야 했던 일도 있었다. 수업 전체가 듣기 활동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며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익히는 등의 활동으로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의 사용이 필수적인 수업이었는데 오디오가 작동하지 않아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오디오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활동, 이를 테면 문법 설명이나 추측 게임(guessing game)등을 활용함으로써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수업을 위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수업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부분이나 진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창의적인 활동들을 구상해보는 과정 자체에서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보람 있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한편, 내가 담당하는 과목인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는데, 특히 담당 학

급 담임 선생님의 음악 수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음악 과목을 담당하시는 이정민 선생님은 음악의 역사에 대한 수업 부분에서 다양한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한편, 수업 내용에 관련된 예시에 있어서 연예인의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집중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습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매우 흥미로운 수업 중 하나는 오누리 수학 교생이 맡았던 연구 수업이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흔히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단조로운 형태의 수업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누리 교생의 수업은 그러한 관념을 타파한 매우 참신한 수업이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복습 차원으로 확인하는 부분에서 가로 세로 퀴즈를 활용한다거나 연립일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조별활동을 통해 다룬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선하고 독창적이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특히 조별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의외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잘 모르는 학생을 옆에서 가르쳐주는 모습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에 이론으로 배웠던 모둠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촉진 및 동기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실제 수업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

교육실습 기간 내내 학습 지도와 관련하여 많은 점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반면, 생활지도의 측면에서는 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담당 학급의 조회나 종례를 직접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전달 사항을 주지시키고, 청소 지도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다. 특히 5월에 시행하는 체육대회나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의 각종 행사 당일에는 담당 학급을 따라다니며 생활 지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에서 생활지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교사가 진정 나와 맞는 직업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나 자신이 교사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회의가 들기도 하였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서로 소통하였더라면 그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특히 교육실습 마지막 날 이러한 아쉬움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한 달 동안의 교육 실습 기간 동안 여러 상황과 맞닥뜨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잊지 못할 날을 꼽으라면 단연코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 여느 때와 같이 조회를 하러 교실에 올라갔을 때 1학년 8반 학생들이 준비해 준 깜짝 파티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학급 전체 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와 영상편지, 직접 구운 쿠키와 케이크 등 많은 것을 준비해 준 것을 보고 고마움을 느꼈던 한편, 그것과 비례하여 그 동안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샘 솟아 몹시 아쉬웠다.

교육 실습 과정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담당 지도 교사이신 이우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이우삼 선생님께서는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교직원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있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무척 와 닿았다. 이러한 말씀은 생활 지도로 여러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사로서 학생들 개개인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들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미국의 교육자인 마바 콜린스의 인용구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녀는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끊임없이 계발해야 하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의무나 책임의식이 교사라는 직업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질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투철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 실습은 내게 있어서 교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재인식하고, 앞으로의 교직관에 대한 신념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